

쇠락 광주 광산업 '광융합산업'으로 재도약

정부 지원 법적·제도적 기반 '광융합기술개발법' 시행 TF팀 구성 기술·국비과제 도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쇠락에 접어든 광주 광산업이 다른 산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재도약에 나선다.

광주시는 26일 "광주 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광융합기술개발법)이 2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광융합기술개발법'은 정부 차원으로 광융합기술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연구·개발 지원, 광융합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 시행으로 광주시는 광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광산업은 지난 1999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8400억원을 투입, 단기간에 지역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광산업에 대한 연구·투자가 저조해지면서 성장세가 약화됐다.

실제 한때 360여 개에 달했던 지역 광산업 관련 기업은 최근 280여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 등 광산업 유관기관과 함께 '광융합기술개발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광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3월 20일 법 제정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다.

법 시행으로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과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광융합산업 발전 수행도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 인력, 인프라 등 지역 역량을 재검집해 고부가 광융합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광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 관련 기관과 TF팀을 구성해 핵심 기술 및 국비과제 등을 도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6일 오후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래에셋 컨설팅 김승건 대표의 안내로 호텔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여수 경도 진입도로 연말까지 예타 선정 주력

김영록 전남지사 현장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현장을 취입 후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 사업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경도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김 지사의 방문은 경도 개발 사업의 성공 관련인 연륙교 건설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을 반드시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김 지사는 이날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광단지 운영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승건 미래에셋컨설팅 대표,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고재영 여수부

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도 개발사업은 지난해 1월 전남도, 여수시, 광양경제청, 미래에셋, 전남개발공사의 투자협약으로 본격화했다. 같은 해 11월 개발사업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고시했고, 올 8월에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 및 6성급호텔 건립을 위한 경도지구 개발계획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국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말까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2019년부터 경도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공공비축미 12만4000t 매입

전남도가 2018년산 공공비축미 12만 4000t을 매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000t 늘어난 것으로, 전국 48만6000t의 25.5% 규모다. 특히 전남도 건의로 올해 첫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이 나주 등 6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27일부터 11월16일까지이며, 포대벼는 10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매입 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통계청에서 조사한 올해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산정된다. 산물벼 매입 가격은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비용 40kg당 872원(포장재 420원·포장임 452원)을 뺀 가격이다.

매입 대금은 산지 쌀값이 결정되기 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간정산금으로 포대당 3만원을 정부가 매입할 달 말일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12월 말 지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베트남 국가주석 조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베트남 하노이시에 마련된 고(故) 전 디아이 팡 베트남 국가주석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파 위기 '광주형 일자리' 불씨 살리기 나서

시 "현대차 합작법인 설립은 국정과제...일자리 창출 사업"

광주시가 난파 직전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사업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노동계의 불참 선언, 현대자동차의 투자 의향 철회 시사 등이 이어지면서 민선 6기 시작해 민선 7기까지 4년 넘게 추진한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시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광주형 일자리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은 행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

정과제로, 광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인구 순유출,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광주의 미래를 위한 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된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과 관련 신설법인의 연봉은 주 44시간(주간 연속 2교대) 기준 평균 초임연봉 3500만원 수준

으로 협의의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광주지역 1·2차 벤더 기업의 초임 연봉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는 연봉 외에 "주거, 보육, 의료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도 실시해 공장, 합작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의 실질 소득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임금 체계 및 수준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로 선정됐으며, 여전히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한 노사상생의 일자리 창출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시는 "노동계의 협상 직접참여에 대해 현대차는 주주간 투자 협상이므로 반대하는 입장이나 시는 현대측에 노동계 의견을 전달했고 노동계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는 안 등 양측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투자자로 함께 참여해 자기자본 2800억원, 타인자본 4200억원 등 700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자기자본 가운데 광주시가 21% (590억원), 현대차는 19% (534억원)를 각각 투자, 빛그린 산단 내 경차 SUV 10만대를 생산하는 라인을 구축해 현대차 위탁물량을 생산하기로 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기초실장 김광휘 전 이북5도 사무국장 임명

광주시는 9월 27일자로 김광휘 전 이북5도 사무국장을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다.

김광휘 신임 기초실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교과와 전북대를 나와 제1회 지방고시에 합격하여 1996년 공직에 입문한 뒤 전라북도 총무과장, 기획관,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등을 거쳐 2014년 안동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후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지원단장, 장관정책보좌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중앙지방협력지원단장 등 폭넓은 중앙 네트워크와 행정경험을 쌓아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 윤목현 이사 선임

광주시는 26일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를 이끌 인권평화협력관(개방형 4급)에 윤목현(62) 현 사단법인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윤 협력관은 전남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행정학 석사와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1980년 당시 전남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신군부에 맞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등을 지내면서 현재까지 5·18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5·18 관련 업무를 맡았다. 광주시는 또 인권 평화협력관과 함께 5·18지원관(일반 임기제 5급)을 공개 모집해 동우의원과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감사 등을 역임한 김태현(57) 씨를 임용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옛, 밝은광주인과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